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이 책은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먼 옛날 중국의 기국(紀國)이라는 작은 나라에 이런 사람이 살았다.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근심을 하는데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근심과 집착을 없애는 방법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지를 보여주며, 고집대 의지 않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뿐임을 말한다.

또 마음의 실제에 접근하면서는 미국인 과학자 존슨 안(Johnson F. Yan)과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의 정신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예로 제시한 뒤 달마 대사의 <헐맥론>을 들며 "마음은 없다"고 정의 내린다.

영화·소설·각종 통계자료 인용 바른 세상살이 길 안내 친절하게 "마음거울에 내면을 비춰보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홍교 스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출판부
1만5000원

평상시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저자는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지식 폭식자'임이 분명하다. 만약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면, 어마어마한 공을 들였음이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홍교 스님이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부-3부까지 스토리 가지의 이야기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부처님과 경전, 그리고 조사 스님들이 진리에 대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킨다.

4부에서는 우주의 첫 번째 부처님 비파시 부처님부터 일곱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마하가섭 존자부터 서른세 번째 조사 혜능대사까지 모두 40명의 부처님과 조사스님 계승을 40개 장으로 나누어 실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실재와 본질, 우주의 질서와 실상, 그리고 마음을 계승과 문화·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한다.

홍교 스님은 책에서 거울이 존재하는 까닭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걸모습을 살피고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기 내면을 비추어 보는 일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바로 마음의 거울이 필만한 그런 책이다. (02)2004-8246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그 다음에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자"고 말한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책 제목 그대로 저자는 에두르지 않고 처음부터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선포하며 드러낸다.

저자 홍교 스님(사진)은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14만여를 성만하고 네 차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범어사 전계대화상과 학교법인 원화학원 이사장, 대각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는 조계종의 명망있는 스님이다.

저자 이력을 소개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저자가 문학가인지, 문화비평가인지, 사회학자인지, 과학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부 이야기는 5~6쪽 분량의 단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그 단편 단편들마다 영화나 소설, 각종 통계자료, 인체와 우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의 우화나 실화, 심리·정신분석 등을 인용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그저 단순히 부처님 진리가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조사스님이 어떻고 했다면 '수행지침서'쯤으로 여길 만도 하지

만, 이 책은 그런 현편일뿐적인 형식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구가 도는 속도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자전 속도는 시속 1,660km이니...(중략)...공전 속도는 더 어마어마하다. 시속 108,000km이니, 초속으로 따지면 29.8km 정도다. 이렇듯 한 순간도 똑같은 수 없고, 한 순간도 멈춰 설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옛거울'을 부수면...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 개정판...육성법문 감동 재현

영화의 '속편'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속설이 있다. 같은 제목에 비슷한 유형의 스토리는 그만큼 신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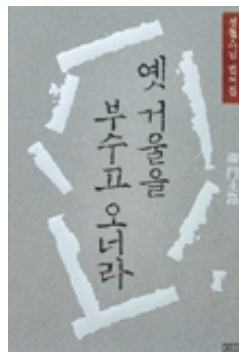
영화와 책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개정판 책 역시 독자에게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보완한다고 해서 기본 골격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1981년에 발간된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禪門正路)>의 개정판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선문정로>는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수행의 자세와 구체적인 수행방법,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를 다양한 불교 원전을 인용해 제시한 성철 스님의 법어집이다. 하지만 문장 자체가 한문투여서 중간 당시부터 현대인들이 쉽게 읽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1993년 <선문정로평석(評釋)>이 나왔지만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가 기대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성철 스님의 강설까지 첨부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펼치면 매 쪽마다 하단에 초록색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
성철 스님 지음
장경각 | 1만원

글자로 설명된 각주들이 눈에 띈다. 이 각주들은 어휘 풀이와 문장 해석을 해 놓은 것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궁금증을 즉시 풀 수 있게 해 준다. 수록된 각주만도 1380여개에 달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해인사에서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강설했던 육성 내용을 정리해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는 세로쓰기에 원문과 평석 구분이 애매한 <선문정로>와는 달리 가로쓰기 형태에 내용을 세로쓰기에 원문과 평석 구분이 애매한 <선문정로>와는 달리 가로쓰기 형태에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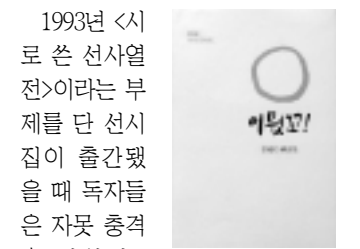
19개 장(章)으로 나누고,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을 내용에 따라 다시 절로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 각 절 내용에 맞는 성철 스님의 강설을 첨부했다.

독자의 이해 돕기를 위한 자료나열에 그쳤다면 답상에 반한 하나 더 높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주석과 강설이 따로 놓이지 않고 본문 내용과 융화되면서 우리가 기우였음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독자에게 '이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 25년 만에 다시 태어나는 성철 스님의 수행 이야기, 성철 스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02)2198-5372

한명우 기자

선승들의 행적·어록 시어로 다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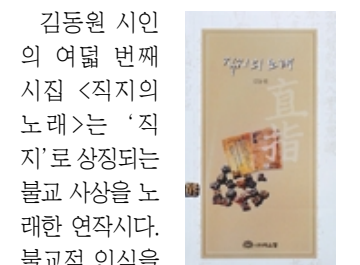


이렇고
홍희표 지음
종려나무 | 1만원

1993년 <시로 쓴 선사열전>이라는 부제를 단 선시집이 출간됐을 때 독자들은 자못 충격을 받았다. 서사(敘事) 혹은 화두에 가까운 문단을 직접 인용한 시들은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형태였다.

이 시집은 그 당시의 시로 쓴 선사열전에 몇몇 작품들을 추고해 <이렇고>라는 제목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시들의 대부분에는 공안이나 화두를 방불케 하는 경우들이 끼어들어 있다. 선승들의 정신을 시로 읽을 수 있다는 데 이 시집의 묘미가 있다.

'직지'의 정신 바탕으로 구도 연작시로 묶어



직지의 노래
김동원 지음
북스힐 | 7000원

김동원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직지의 노래>는 '직지'로 상징되는 불교 사상을 노래한 연작시다. 불교적 인식을 통해 창조된 시편들은 선사가 추구하는 경계와 구분을 없애고, 궁극에는 언어마저 지우려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선가의 언어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압축되고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다. 하지만 '직지' 사상의 심오함을 안다면, 이를 시어로 표현한 시인의 구도열에 고개가 숙여진다.

12연기와 위빠사나의 관계는?

우 소바나 사야도의 '호두마을 법문' 모아



12연기와 위빠사나
묘원 편주해
행복한 숲 | 2만원

위빠사나 수행과 12연기는 어떤 관계일까. 묘원 법사(한국 위빠사나선원장)는 "12연기는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법이지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혜이며, 위빠사나 수행자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면 사경을 제 거르기 어려워 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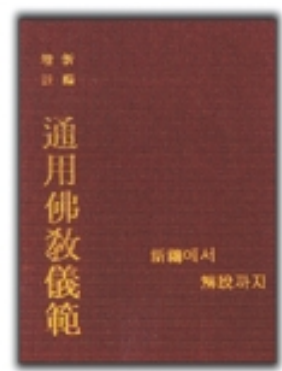
이 책은 미얀마 양곤의 웨민모 명상센터 선원장인 우 소바나 사야도가 2003년 위빠사나 수행처인 천안 호두마을에서 수행을 지도하며 설했던 법문을 편주해자인 묘원 법사가 보완해 내놓은 수행 지침서다.

12연기(十二緣起)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와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는 의미로 존재의 소멸을 설명하고 있는 연기법의 기본 원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수행자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요소와 수행할 때의 세 가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12연기뿐만 아니라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하는 초보수행자에서부터 경험이 있는 모든 수행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02)512-5258

한명우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주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證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딱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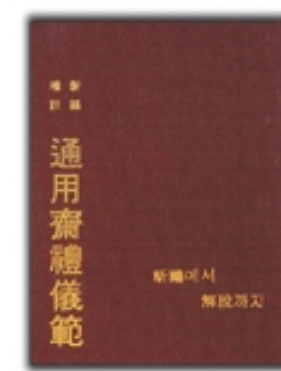
■ 동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재물보살복명단의식
- 제8장 재물보살 파부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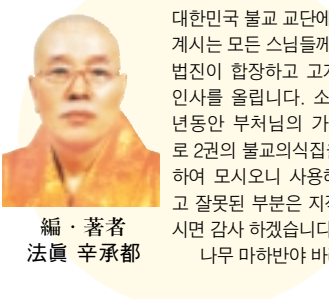


천지간 만물지중에서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서 유인이 가장 귀한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師님께 집합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사십구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편·저자 : 범용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